
4차 산업혁명시대 :

왜, 기업가정신인가?

-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이해 -

2016. 11. 16

금 기 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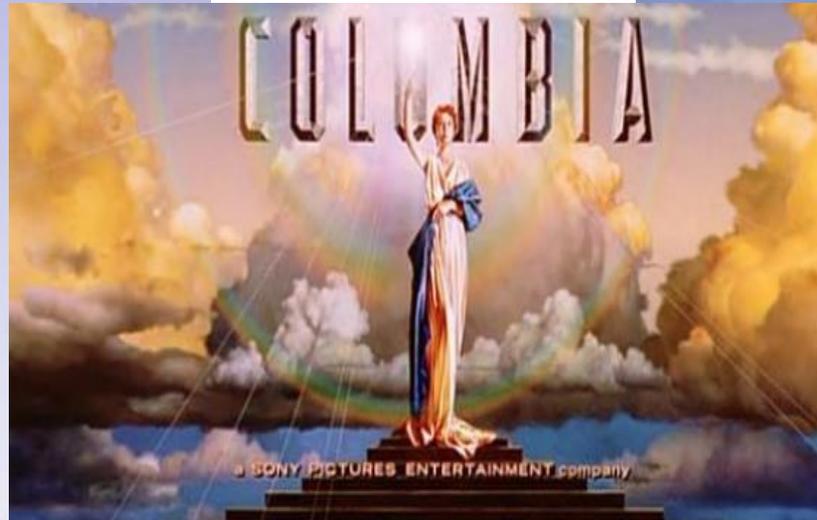
-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세상이 **바뀌고** 있다



■ (이야기 하나) : 80년대 세계를 장악한 **일본**



록펠러 센터(미쓰비시)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을 전부 살 수 있다

고흐의 해바라기



| 순위 | 기업(국) | 주식 시가총액 | 87 매출액 |
|----|----------------|---------|---------|
| 1 | NTT(日) | 276,840 | 46,639 |
| 2 | IBM(美) | 76,049 | 54,200 |
| 3 | 住友銀行(日) | 65,335 | 300,933 |
| 4 | 엑슨(美) | 62,572 | 82,100 |
| 5 | 第一勸業銀行(日) | 61,971 | 325,206 |
| 6 | 富士銀行(日) | 59,746 | 293,103 |
| 7 | 東京電力(日) | 57,318 | 32,455 |
| 8 | 三菱銀行(日) | 53,934 | 296,063 |
| 9 | 日本開發銀行(日) | 52,170 | 225,909 |
| 10 | 野村證券(日) | 51,154 | 28,707 |
| 11 | 로열더치셸(英, 네덜란드) | 49,312 | 78,312 |
| 12 | 도요타자동차(日) | 46,334 | 54,984 |
| 13 | 三和銀行(日) | 46,136 | 262,051 |
| 14 | 제너럴일렉트릭(美) | 39,617 | 39,300 |
| 15 | 松下電器(日) | 34,852 | 39,696 |
| 16 | 新日本製鐵(日) | 32,252 | 19,276 |
| 17 | 日立(日) | 31,721 | 40,980 |
| 18 | 東海銀行(日) | 31,288 | 194,270 |
| 19 | 日本長期信用銀行(日) | 30,078 | 156,087 |
| 20 | 三井銀行(日) | 29,351 | 185,106 |
| 21 | A T & T(美) | 28,855 | 33,600 |
| 22 | 포드(美) | 28,585 | 71,600 |
| 23 | B P(英) | 27,441 | 51,589 |
| 24 | 브리티시 텔리콤(英) | 26,612 | 19,073 |
| 25 | 三菱信託(日) | 25,621 | 99,750 |
| 26 | G M(美) | 25,050 | 102,000 |
| 27 | 住友信託銀行(日) | 23,517 | 94,590 |
| 28 | NEC(日) | 22,986 | 22,362 |
| 29 | 關西電力(日) | 22,744 | 16,573 |
| 30 | 三菱부동산(日) | 22,647 | 2,076 |

◇ 세계 50대 기업 순위



DAILY ANGELA

페블 비치 골프클럽(코스모월드)

■ 전성기 일본 90년들어 “퇴조”.... 미국 “부상”

| 1987년 단위 : 억달러(USD) | | |
|---------------------|------|--------|
| 순위 | 국가 | 총액 |
| ① | 일본 | 29,970 |
| ② | 미국 | 25,810 |
| ③ | 영국 | 6,250 |
| ④ | 독일 | 2,360 |
| ⑤ | 캐나다 | 2,130 |
| ⑥ | 프랑스 | 1,930 |
| ⑦ | 이탈리아 | 1,560 |
| ⑧ | 스위스 | 1,390 |
| ⑨ | 호주 | 1,000 |
| ⑫ | 홍콩 | 570 |
| ⑰ | 한국 | 200 |

| 2012년 단위 : 억달러(USD) | | |
|---------------------|-----|---------|
| 순위 | 국가 | 총액 |
| ① | 미국 | 186,683 |
| ② | 중국 | 36,973 |
| ③ | 일본 | 36,809 |
| ④ | 영국 | 30,194 |
| ⑤ | 캐나다 | 20,161 |
| ⑥ | 프랑스 | 18,233 |
| ⑦ | 독일 | 14,863 |
| ⑧ | 호주 | 12,864 |
| ⑨ | 인도 | 12,633 |
| ⑩ | 브라질 | 12,298 |
| ⑪ | 한국 | 11,804 |

| 2016년 6월말 억달러(USD) | | |
|--------------------|-----|---------|
| 순위 | 국가 | 총액 |
| ① | 미국 | 257,748 |
| ② | 중국 | 69,673 |
| ③ | 일본 | 46,864 |
| ④ | 영국 | 34,797 |
| ⑤ | 유럽 | 32,862 |
| ⑥ | 인도 | 30,196 |
| ⑦ | 홍콩 | 29,725 |
| ⑧ | 캐나다 | 18,687 |
| ⑨ | 독일 | 15,390 |
| ⑩ | 스위스 | 14,195 |
| ⑪ | 한국 | 12,594 |

연도별 시가총액 상위 10대 IT 기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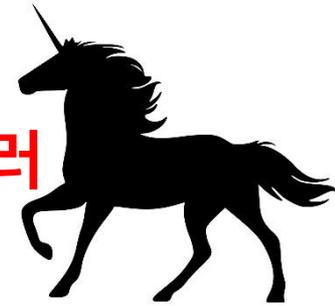
- 전(全)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



| 순위 |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14년 |
|----|-------|-------|-------|--------|
| ① | IBM | 시스코 | 애플 | 애플 |
| ② | 히다찌 | MS | MS | MS |
| ③ | 파나소닉 | 노키아 | 구글 | 구글 |
| ④ | 루슨트 | 인텔 | IBM | 알리바바 |
| ⑤ | NEC | 오라클 | AT&T | 차이나모바일 |
| ⑥ | 소니 | IBM | 오라클 | 페이스북 |
| ⑦ | 코닥 | EMC | 삼성전자 | 오라클 |
| ⑧ | 후지쯔 | 에릭슨 | 인텔 | 버라이즌 |
| ⑨ | 샤프 | TI | 시스코 | 삼성전자 |
| ⑩ | 산요 | 루슨트 | HP | 인텔 |

| 2016년 9.3기준(억달러) | |
|------------------|-------|
| 애플 | 5,894 |
| 구글 | 5,437 |
| MS | 4,510 |
| 아마존 | 3,677 |
| 페이스북 | 3,644 |
| 알리바바 | 2,641 |
| 차이나모바일 | 2,557 |
| 텐센트 | 2,463 |
| AT&T | 2,523 |
| 삼성전자 | 2,269 |

■ 국가별 유니콘 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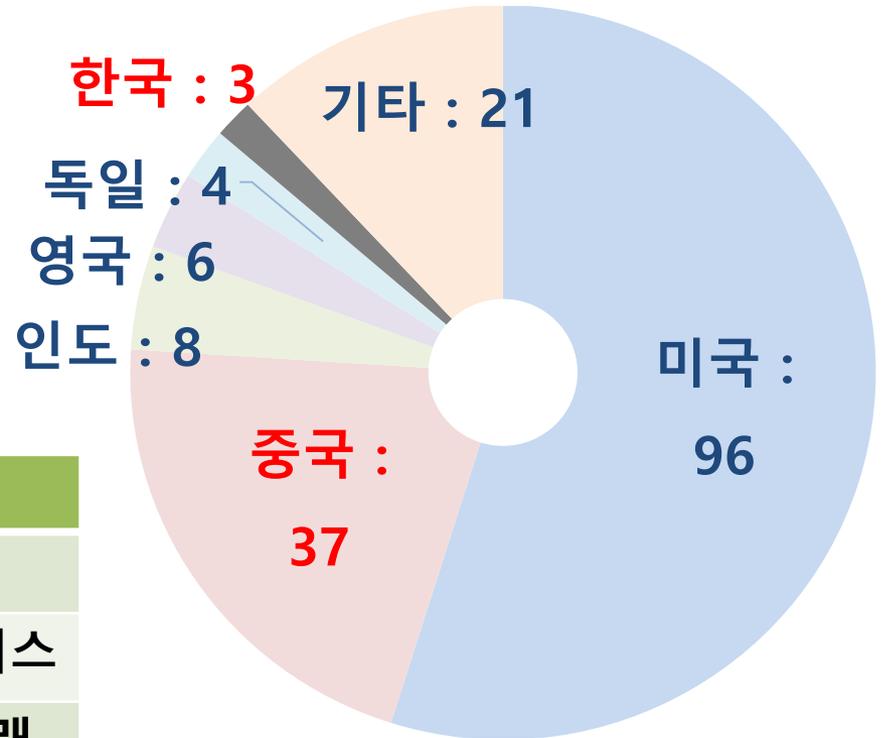


· 세계 유니콘* 기업 175개로, 가치는 6,280억달러

*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

· 중국 기업의 대약진

- 37개 유니콘 스타트업
- 기업가치 1,800억달러



|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 | |
|-------------|--------|--------|
| CJ게임 | 179억달러 | 게임 |
| 옐로모바일 | 40억달러 | 모바일서비스 |
| 쿠팡 | 50억달러 | 전자상거래 |

자료 : CB인사이트 2016.11.15 기준

■ 세계 10대 유니콘 스타트업 현황 (CB Insight 11.15일기준)

(단위 : 달러)

| 순위 | 기업명 | 기업가치 | 국가 | 산업분야 |
|----|---------------|------|----|----------|
| ① | 우버 | 680억 | 미국 | 모바일 차량공유 |
| ② | 샤오미 | 460억 | 중국 | 하드웨어 |
| ③ | 디디콰이디 | 338억 | 중국 | 모바일 차량공유 |
| ④ | 에어비엔비 | 300억 | 미국 | 전자상거래 |
| ⑤ | 팔란티어 | 200억 | 미국 | 빅데이터 |
| ⑥ | 루닷컴 | 185억 | 중국 | 핀테크 |
| ⑦ | 차이나인터넷 플러스 | 180억 | 중국 | 인터넷서비스 |
| ⑧ | 스냅챗 | 180억 | 미국 | SNS |
| ⑨ | 위워크 | 169억 | 미국 | 코워크 스페이스 |
| ⑩ | 플립카트 | 160억 | 인도 | 온라인쇼핑몰 |

- 일본의 끝없는 몰락 : 미국, 중국에도 뒤져 3위로 추락

왜, 이렇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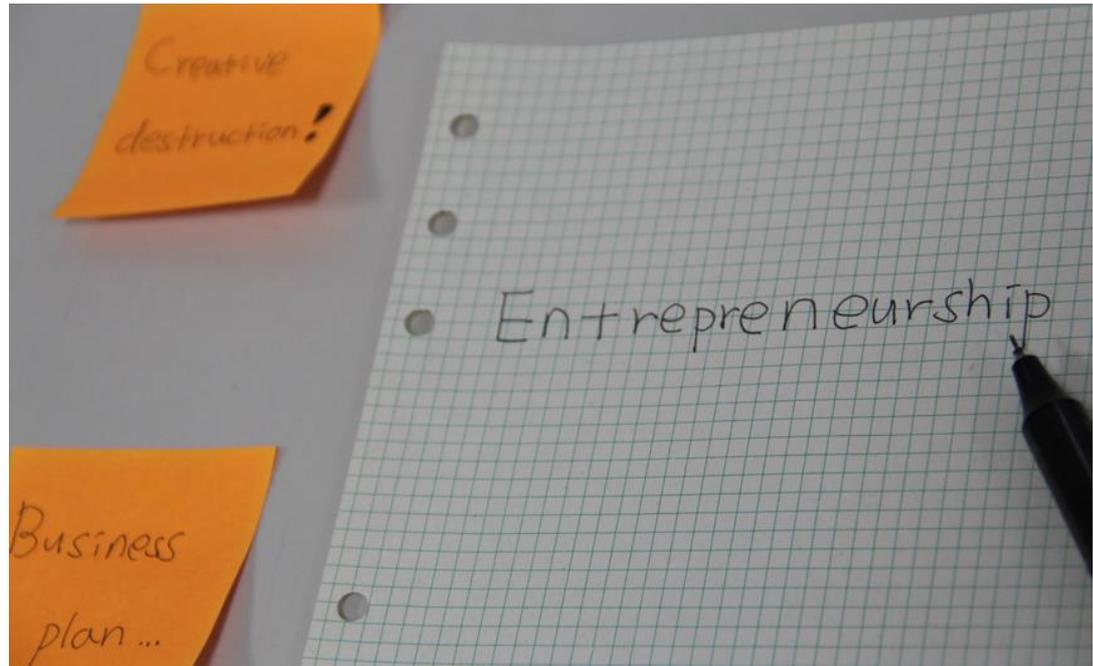
핵심은 '기업가정신'

기업환경이 크게 변할 때 필요한 벤처정신
일본전자업체들은 "기업가정신"이 없었다

| 미국 IT기업 창업연도 | VS. | 일본관련기업들 창업연도 |
|--|-----|---|
| HP(1938), 인텔(1968) MS(1975), 애플(1977) 델(1984) 야후와 아마존(1994) 구글(1998) "IT혁명을 활용해 세계 톱으로 부상" | | NEC(1899), 도시바(1904) 히타치(1910), 파나소닉(1935) 소니(1946), 산요(1950) "최하 60년이상 된 기업들이 대부분" |

- 삼성경제연구소 조사

-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은 이다

■ 기업가정신은?

=>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 + ship**(마인드, 태도, 역량)

=> **起業家精神**(업을 일으키는 정신)



• **창업가**
(Entrepreneur)



• **기업가(Business man)**

미국, 기업가정신으로 경제성장 견인

-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개막,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가정신' 필요

"국민소득 2만불까지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나 그 이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창업이 관건".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카우프만재단 리더십센터 설립('92),
-> 기업가정신 확산

벵슨대학 기업가정신학부 신설('89),
이후 정규 교과목 확산

 미국 / 48,000\$

- '창업국가 미국' 국가비전
- 실리콘밸리의 기적
- 스탠포드 대학
- 카우프만재단 기업가정신확산('92)

4만\$

3만\$

2만\$

 영국 / 39,000\$

- '신기술창업회사' 육성
- 대학의 사업화 강조 Third Stream Mission 개념도입('97)
- Cambridge Enterprise 등 대학 내 사업화·투자운용 회사설립

 이스라엘 / 32,000\$

- '세계최고 Start-up 국가'
- 요즈마펀드 창설('93)
- 창업의 산실 군사학교 탈피오트

 한국 / 27,000\$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에서 정체

2만불 '88

3만불 '97



‘메이드 인 스탠퍼드’ 매출 3000조원

(年 2조7000억 달러)



(스탠퍼드 대학 D스쿨)



미래의 잡스 키우는 싱가포르립대 창업존 싱가포르립대는 창업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캠퍼스에 마련했다. ‘행어(Hanger-격납고)’란 이름이 붙여진 이 공간에는 초기 창업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구역이 있고, 다양한 창업 관련 컨설팅과 강연도 진행된다. 싱가포르립대 제공

스탠퍼드대 출신 창업사 4만개
年매출 한국 GDP의 2배 수준
싱가포르립대 ‘창업 격납고’ 운영
공대들, 엔지니어보다 창업가 양성

같은 해의 스타트업 중심지에 비해 6개월~1년간 인턴 생활을 하며 선진 창업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글로벌 명문 공대들 사이에 ‘제2의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와 스티브 잡스(애플 창업자) 키우기’ 경쟁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선진국들은 새 기술과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만들어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꿈을 가진 창업가 양성을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동아일보가 창업가 양성 교육으로 유명한 세계의 13개 명문 공대를 둘러본 결과 교육 방식은 다양해도 저커버그와 잡스처럼 시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창업가를 길러내겠다는 목표는 똑같았다. 글로벌 명문 공대들이 창업가 양성에서 미래 희망

달러(약 3051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조3779억 달러(약 1557조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창업 문화가 오래전에 뿌리 내린 미국과 유럽의 명문 공대들은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까지 창업 마인드를 강조하는 등 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 아시아권 명문 공대들은 창업 유망주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도 2004년 법인화와 동시에 산학협력전담부서를 발족하고 2005년부터 ‘기업가 도장(道場)’을 만들어 창업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다. ‘도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유독나 격투기처럼 ‘미래 창업가’들이 창업 노하우를 단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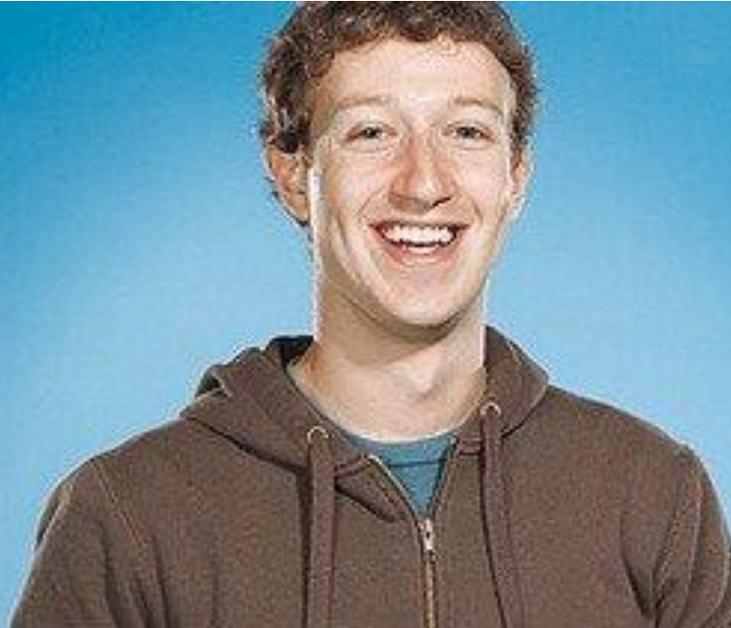
스타트업의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LA)는 공대생을 위해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양과목을 개설했다. 성공한 창업가들의 행동양식을 체계화한 ‘버클리 방법론(Berkeley Method of Entrepreneurship)’을 배우기 위해 공

| | 동문 창업기업 수 | 일자리 수 | 매출액 |
|---|-----------|---------|----------------------------|
|  STANFORD UNIVERSITY | 39,900개 | 약 540만개 | 약 2조 7천억달러 (세계 5위 경제규모) |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25,800개 | 약 330만개 | 약 1조 9천억달러 (세계 9위 경제규모) |

- 비전 실현자 :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1



32

420

129.50

3,710

(2016.11.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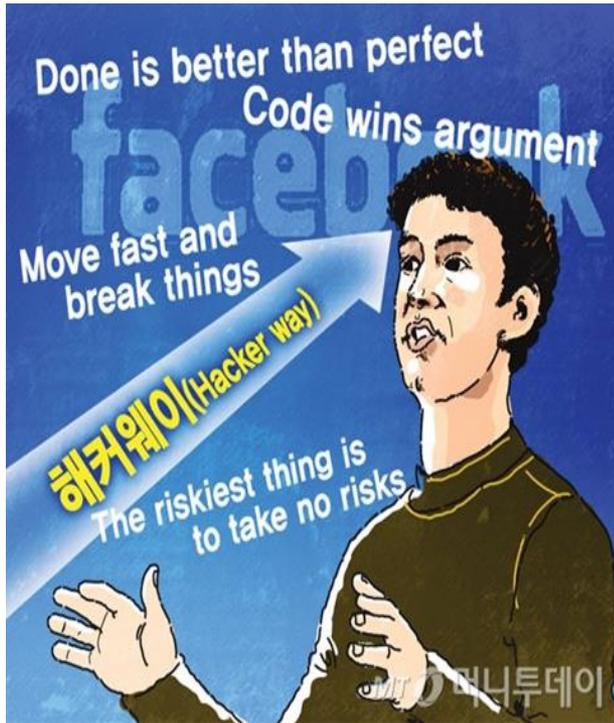
17

15,000

세릴 샌더버그 COO



▪ 주커버그의 기업가정신 : **해커웨이**



-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것 보다 당장 시도 하는 것이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 토론과 기획만 하는 사람은 직접 코딩하는 사람에게 진다
(Code wins argument)
- 빠르게 움직여 문제점을 해결하라
(Move fast and break things)
-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The riskiest thing is to take no risks)"

■ 수익보다 **비전 실현**을 우선

• **열정**을 바탕으로 험난한 길 선택 : **매각 < 투자유치**

- 2005년 : 미디어그룹 **비아콤(Viacom)** 7500달러 매수 제안 거절(* 매출 100만달러)
- 2006년 : **야후**가 10억달러 매수 제안도 거절

• 그러나 **외부투자**는 **허용**

- 2007년 : **마이크로소프트** 2억4000만달러 출자 수락
- 2009년 : 러시아 **DST(디지털 스카이 테크놀러지)** 2억달러 투자유치
- 2011년 : 골드만삭스 4억5000만달러 투자유치,

YAHOO!



■ 엘런 마스크, “비전을 실현하라”

➤ 실리콘밸리 기업은 실제로 사업 추진/ 기업운영에 비전 활용

- ✓ 문제 발생 시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 필요
- ✓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관건

“사람들이 화성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 엘런 머스크의 비전 -



- ✓ **직원과 비전 공유를 반복하며 기업 정체성 구축**
 - *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비전을 일치시켜 의미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 부여
- ✓ **엘런 머스크가 직접 엔지니어 1,000명을 인터뷰해 채용**

■ 미국, 실패도 자산으로 활용

'실패도 성공창업을 위한 과정이다'

실패가 경험이나 성공의 과정이라는 공감대 형성

- ✓ 실리콘밸리 창업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 **10억달러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0.1%**에 불과



자료 : 중소기업청

차이는 **'재창업률'**

- ✓ 실리콘밸리는 한번 창업에
실패해도 **두번 가까이 재도전**
이 가능

- CEO의 창업 횟수, 실패를 통한 교훈 등이 엔젤이나 벤처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미국,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적 지원

Google

➤ 실패한 프로젝트라도 면밀하게 평가해 '사려 깊은 실패'로 판단시, 오히려 해당 팀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구글웨이브** 실패가 대표적

✓ **1년 안에 실패하기** : 자유롭게 도전하되 **실패할 확률이 높**
다면 1년안에 포기하도록 권장



■ 미국,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시공간 제공



• 워케이션 제도운영

- ✓ 선정된 프로젝트 팀에게 원하는 장소에서 **일주일간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어떤 아이디어든 자유롭게 연구 실행한 핵워크제도 운영

- ✓ 창립 기념주간 동안 회사의 주요 서비스로 성장할 **다양한 데모 프로그램** 기획

- 미정부, 전세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GES 2016** 개최



■ 중국 창업 열풍 배경...정부의 **기업가정신** 강조

“**대중창업 만인창신(大衆創業 萬人創新)**”

* 창업과 혁신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



“ **고용**이 ‘삶의 질’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 **나은 기업가정신**을 위한 플랫폼(‘중창공간(衆創空間)’)을 구축해 나갈 예정 ” <리커창 총리>

지금 중국은... 하루 1만개씩 創業 빅뱅

(상업)



中 창업박람회장 가득 채운 열기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지난 6월 열린 스타트업(신생 벤처 기업) 박람회 '테크크런치'고 있다. 중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예비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몰렸고, 콘퍼런스가 열린 대형 홀은 1000여개의 자리가 모자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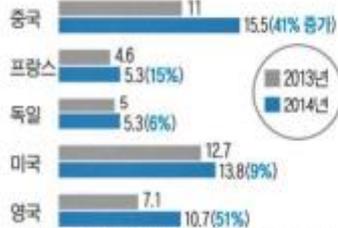
'중국 = 창업천국'... 하루 1만5000개 기업 탄생

세계는 창업전쟁중 (1)

“식어가는 경제, 창업이 해법”
 中·日·유럽 등 정부 적극 지원
 독일판 실리콘밸리 만들고
 佛은 '창업 비자'로 인재 유치

중국 선전(深圳)의 류청(29)씨는 중국
 기업업체 '텐센트' 출신의 청년 창업가

국가별 '창업 단계 기업 활동(TEA)' 지수



※성인(16-64세) 인구 중 창업 3년 6개월 미만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자료: 글로벌기업활동모니터 보고서

를 주관하는 창업
 처서포트 관계자는
 만 해도 일본에선 상
 면서 "최근 창업에
 게 높아지면서 가는
 중국과 일본만의
 파리의 변두리인 13
 스타트업 1000개를
 며 면적의 초대형
 있고, 베를린 장벽
 미테(Mitte)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新) 성장동력을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
 하고 있다. 선전과 베이징 등 광둥 등 창
 업 매가를 중심으로 하루 1만 5000개 가
 까운 기업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이들 신생기업에 투입되는 투자 규모
 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는 '드론(dro
 ne-무인항공기)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DJI와 같은 세계적 혁신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 교육, 문화소스 연혁기업 육성
 18일 중국 국무원총리저택에서 열린 유
 해 1-9일 중국 신생기업 수는 40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
 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1만 4000개 기업
 이 생겨나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평균 1
 만 2000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대해 공상총국은 첨단 서비스업
 과 하이테크 기업기업 탄생이 크게 늘어
 나면서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내 올해 신규
 출자 기업의 81%는 서비스업이다. 구체
 적으로 교육, 문화소스, 엔터테인먼트,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관리 소
 프트웨어 등 관련기업이 가장 많은 주
 세다.
 신생기업 대다수는 소규모·소자본 기

업에 신설기업만 400만개
 지난해보다 26% 늘어나
 신설기업 81%는 서비스업

정부 '대중창업' 전폭 지원
 국가 성장동력 자리매김

으로 아이디어의 기술을 무기로 사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연
 투자 등의 자본이 몰려들면서 기술 전문
 기업과 투자자의 만남이 손쉽게 이뤄진다.
 특히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
 과 베이징의 증권은 지역 등이 자본과
 기술의 만남의 장(場)이 되고 있다.

◇ 정부, 지난해 7조원 가까이 벤처 투자
 중국의 창업 붐은 정부 당국의 전폭적
 인 자자를 토대로 한다. 리커창(李強)총
 총리가 지난해 3월 "중창업, 만중혁신
 (大創舉, 萬創新)"이라는 기치를 내
 걸고 민간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하
 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창업과 혁신을 경제 발전의 세 원동
 로 삼아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연
 투자 등의 자본이 몰려들면서 기술 전문
 기업과 투자자의 만남이 손쉽게 이뤄진다.
 특히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
 과 베이징의 증권은 지역 등이 자본과
 기술의 만남의 장(場)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400억위안(약 6조
 7000억원) 규모의 '신생기업창업투자
 도자금'을 조성했고 스타트업(신생
 차기업)에 대한 강제 및 연세 면제
 혜택에 대한 강제 및 연세 면제
 혜택에 대한 강제 및 연세 면제
 혜택에 대한 강제 및 연세 면제

자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기업등록절차
 를 간소화했다.

◇ 스타트업 투자, 세계 최고 세계 1위
 이렇듯 열기 시작한 창업 붐은 알리바
 바, 텐센트, DJI 등 '비스타'를 탄생시켰
 고 이는 중국의 창업 지면을 넓히는 계
 기가 됐다.

최근에는 민간 대기업에서 창업 투자
 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최대 보탈기업 바이두는 최근 신생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35억 위
 안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중국 최
 대 기업집단 화이얼도 창업 양생을 위한
 플랫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같은 창업 열기 속에 중국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미국을 제치고 세
 계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중국의 지난해
 스타트업 투자규모는 82조 6000억원으로
 전년 27조 8000억원에 비해 3배 가량 급
 증했다.
 중국 IT관계자에는 "경제 체질 전
 환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국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선택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신생기업들
 은 중국이 제1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박지연·김대용 특파원 aaron@**

■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각종 규제 완화, 지원책 수립

• 규제완화

- ✓ 대학교 과학 기술단지 등 연구개발 비용의 세금 공제
- ✓ **혁신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 행정절차 간소
- ✓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신성장 산업(드론 및 핀테크) 분야에 대해 선(先)허용·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



• 지원

- ✓ 상하이, 손실입은 엔젤투자자에게 연 최대 600만 위안의 **보상금 지급**

■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창업1세대의 적극적 지원

2016 상반기 BAT의 스타트업 투자 현황 단위: 건(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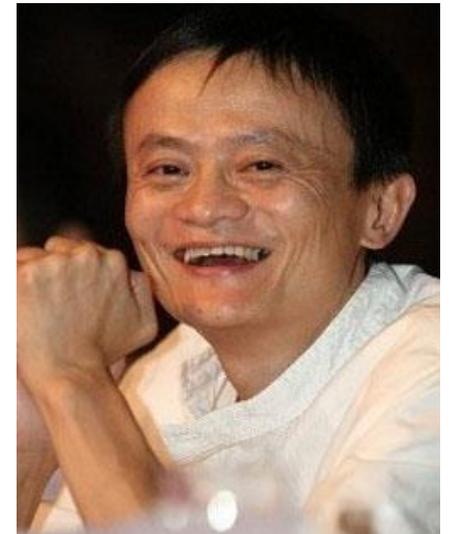


•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의 지원 : BAT

- ✓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순환생태계 조성
- 바이두 : 3조원대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 알리바바 : 음식배달 스타트업 **어러미**(12억 5천만달러)에 투자
- 텐센트 :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 알리바바 마윈, 100만 창업자 양성 추진

- ✓ 클라우드 서비스인 알리윈(Aliyun)통해 최대 온라인 창업자 금 지원 플랫폼 조성
 - 창커플러스와 ZhenFund(真格基金), 중국IDG 캐피탈, 이노베이션 워크스(创新工场) 등 30여개 투자회사와 협력해 약 1조 7800억원의 펀드를 조성, IT관련 스타트업을 지원
- ✓ 베이징, 상하이, 우한(武汉),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등 5개 도시에 창업자들에게 무료로 공장부지를 제공



■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 구축

• 창업거점 : 베이징 중관촌(중국판 실리콘밸리)의 성황

- ✓ 하루에 5개정도 창업팀 신설
- ✓ 총 투자액 : 약 20억 위안

✓ 명문대학 베이징, 칭화대학 등 포진,
->우수한 인적자원 조달이 강점

✓ 창업자와 투자자들 연결하는 다양한 창업카페가 자리매김



■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 구축

- 하드웨어 창업을 주목하라 - 창업환경 1위 도시, 선전(Shenzhen)



✓ 과거 짝퉁 생산지 오명에서 벗어나 창업인재를 모으는 창업거점으로 재탄생

기획생산

✓ 약 1천개의 다품종 소량생산 제조기업들 포진

유통

✓ 화창베이 전자상가 (용산전자상가 10배수준)

✓ 세계 3대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들의 포진

* 신생 스타트업을 짧은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육하는 기관 혹은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창업 열풍 배경 : 충만한 기업가정신 발휘

중국 기업가정신 : 세계(50점) 및 아시아 평균(64점) 크게 상회

- ✓ 개인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도전 의향, 실현 가능성, 의지력** 등 모든 부분에서 기업가로서 잠재력이 현격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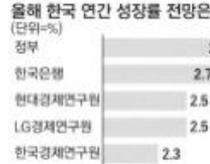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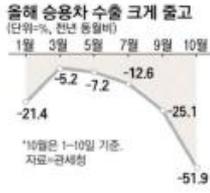


(2015년 44개국, 2016년 45개국 기준)

- 출처 :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정신 리포트(2016년 11.15)
 - 세계 14~66세 50, 861명 대상조사, 한국 1500명 조사 실시

■ 왜, 기업가정신인가? 경제, 생산 · 소비 · 투자 '트리플 쇼크'로 '장기 불황' 조짐

수출·내수·투자 모두 뒷걸음...상상못한 '성장절벽' 위기



“삼성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현대차 파업 후폭풍, 구조조정 지연과 감영란법에 따른 소비 정체 등의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올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까지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등 구조적인 모순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인 ‘무지’까지 배격거리면서 이른바 4분기 성장률 ‘절벽설’이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은 0.4~0.7% 유지가 예상되지만 4분기 성장률은 0%대 초반이나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연구소의 4분기 전망이 암울한 이유는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주력 산업의 부진 때문이다.

전체 수출에서 8%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1.9%나 수출액이 급감했다. 최근 불어 타결됐지만 수개월 지속된 현대차 파업이 생산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도 영향을 줬다. 이달 10일까지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31.2%나 줄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은 국내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이번 4분기 예만 약 2조원대 증반에 달하는 ‘생산 실적’을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생산액 대비 41.1% (2014년 기준)이다. 결국 삼성발 부가가치 감소 규모가 올해 4분기예만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 이야기다. 2분기(전기 대비 0.8%) 당시 약 3조원의 부가가치 증대를 이룬 점을 감안하면 삼성 갤럭시노



18일 모습

맥킨지 보고서

한강의 기적은 멈췄다.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다.

북핵보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백'이 앞 한 국책연 반기별로 나라 근 킴을 수 있 한다"고

그룹사들 신규 채용 절반 줄여...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주요 그룹 하반기 공개채용 일정

| 기업 | 접수 | 내용 |
|-----|-------------------|---|
| 삼성 | 9월 9~20일 | 직무적합성평가(사 →10월 16일 삼성 →실무면접-창의성 |
| 현대차 | 8월 30일~ 9월 9일 | 개발-플랜트-전략 은 상시 채용 프론 통해 모집. 서류전 (HMAT)→1차 신입 11월 4일)→2차 면 |
| SK | 9월 1~23일 | 서류전형→SK 인 →10-11월 면접 |
| LG | 9월 1일~ | LG전자-LG화학- 계열사 모집. 채용 에서 지원. 서류전 →그룹 공통 인적성 →1-2차 면접(11월 |
| 롯데 | 9월 6~20일 | L-TAB(인적성검사 →11월 중순 최종 미정. 지난해 하반기 (신입 공채 950명, |
| 포스코 | 9월 5~20일 | 서류전형→인적성 응-복합형 인재 선 |
| GS | 9월 중 | 그룹 공채 없이 계 →인적성 검사-면 |
| 한화 | 9월 초 | 계열사별 모집(전 서류전형에 이어 1 3차 면접도 실시). |
| CJ | 9월 7~26일 | 서류전형→인적성 →12월 말 최종 합 |
| KT | 8월 29일~ 9월 12일 | 서류전형→인적성 |

기업 >
취업창업채용

좁아진 취업문... 채용규모 10% 줄었다

이위재 기자 > 김충령 기자 > 김지섭 기자 >

기사

100자평(0)

↓ ✉ 📄 +크게 | -작게

인력 : 2016.08.31 03:09 | 수정 : 2016.08.31 09:02

경향신문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001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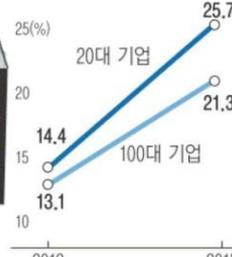
일자리에 관심 없는 대기업



2012~2015년 고용증가율



인건비 대비 배당 성향



자료: 김삼화 의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00대 기업 노동분야 지표 분석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간 100대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국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흑자를 낸 100대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 평균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에게 인건비 100원을 지급할 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은 3년 사이 13원에서 21원으로 늘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배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데 치중했음을 보여준다. 1관련기사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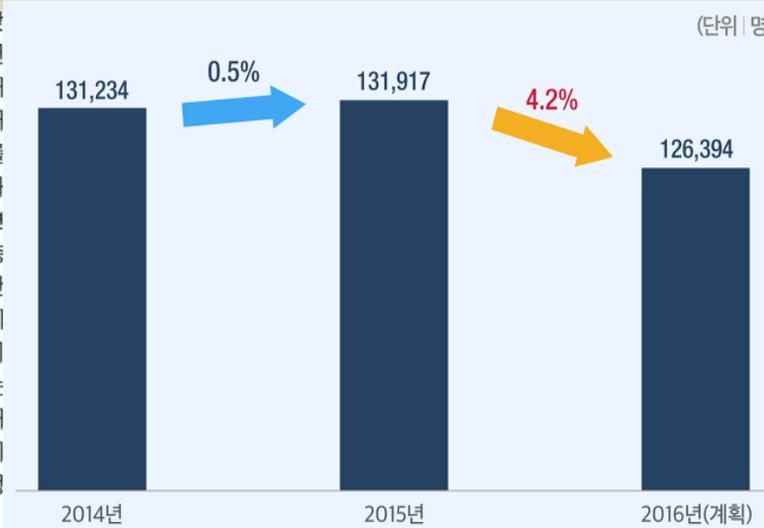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12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황선자 박사)에 의뢰해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매출기준)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조사는 2013년 경향신문이 분석한 노동소득분배율, 자산증가 대비 고용증감, 간접고용비 비중, 여성 상대임금, 인건비 대비 배당성향 등 5가지 지표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고용증가율
국내 평균 13.4%, 100대 기업 7.3%

인 이익을 양질의 채용 등을 통해 사회와 나누려는 노력이 인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30대 그룹 신규인력 채용실 적 및 계획

(단위: 명)



한국 구직단념 청년, OECD 중 세번째로 많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저성장의 그늘' 니트족

국내 청년층(15~29세) 인구 6~7명 가운데 한 명가량이 '니트족(NEET)'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니트(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 일할 의지도 없고 직업 교육과 훈련도 받지 않는 '구직 단념자'를 일컫는 용어다.

주요국 니트족 비중 (단위:%)



*2013년 OECD 회원국 기준. 청년 인구 대비. 자료: OECD

'열정페이' 청년, 작년 사상 최대 63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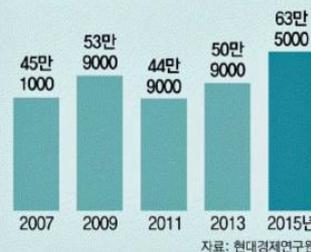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 평균 71만원
청년 임금노동자의 17% 달해

15~29세 청년 노동자 6명 중 1명은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 이른바 '열정페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비중은 역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은 지난해 63만5000명을 기록해 전체 청년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했다.

2009년 14.7%(53만9000명)이던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은 2011년 12.3%(44만9000명)로 다소 낮아졌으나 4년 만에 다시 4.7%포인트(18만6000명)가 늘어났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인데 반해 최저임금은 올해 8.1% 상승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열정페이 청년과 비(非)열정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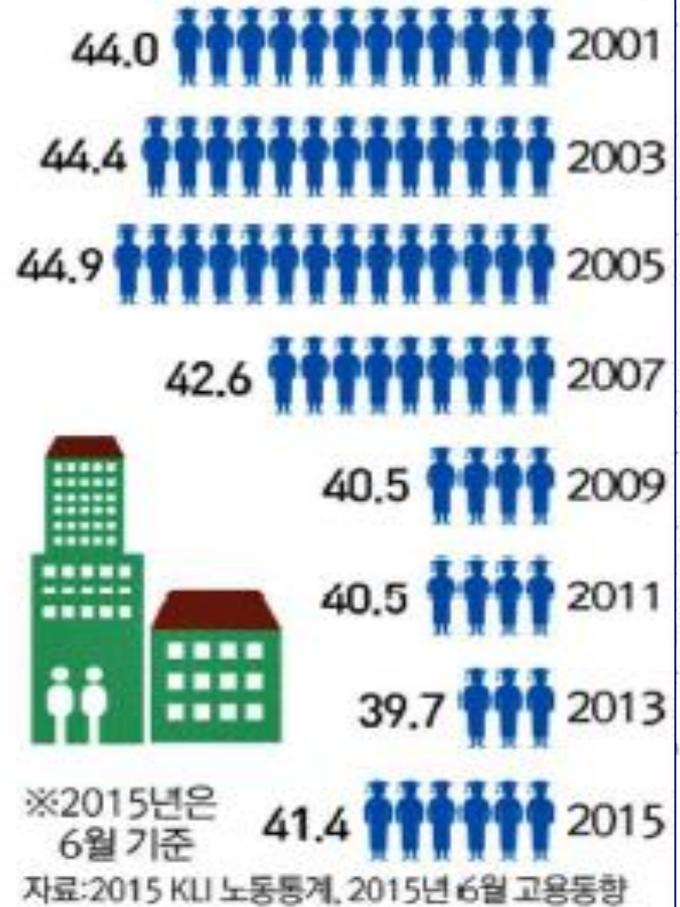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 수 추이 (단위: 명)



청년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71만 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85만 원의 38.1%에 불과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며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장려 세제 등 근로여건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고용률 추이 (단위:%)



※2015년은 6월 기준
자료: 2015 KLI 노동통계, 2015년 6월 고용동향

로 높다"며 "청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12년 말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점도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6월 10.2%에 달했다. 2012년 7.5%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졌다. 일할 의욕이 있어도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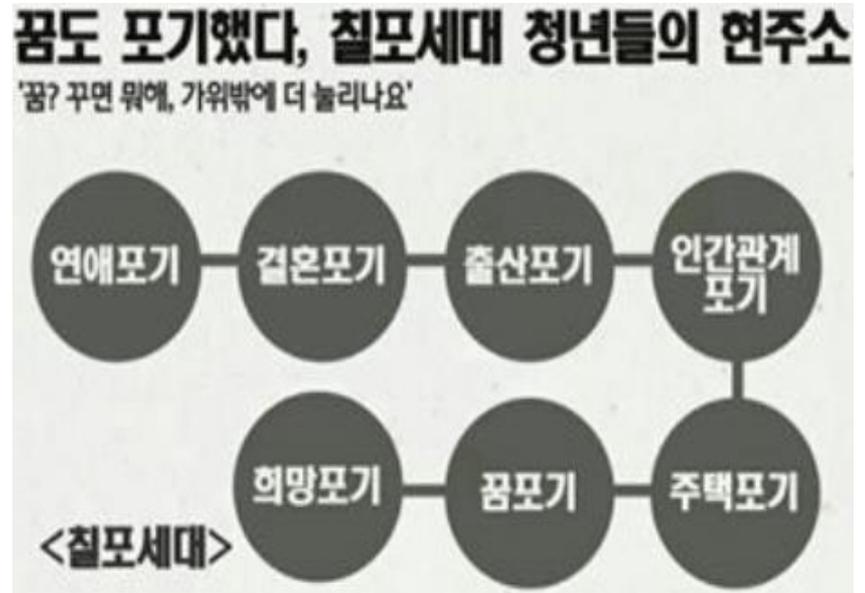
◆5포·7포 세대까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일

■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상황 : '자포자기'

- 3포, 5포, 7포 세대 N포 세대 !!
-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다..편하게 성장해서”
-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어야 할 텐데..!!



일본 기자 야마오카 다쿠...사토리 세대
<갖고 싶은 것이 없는 젊은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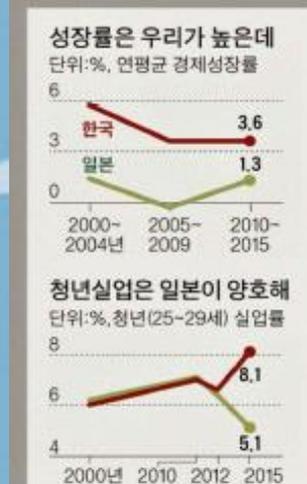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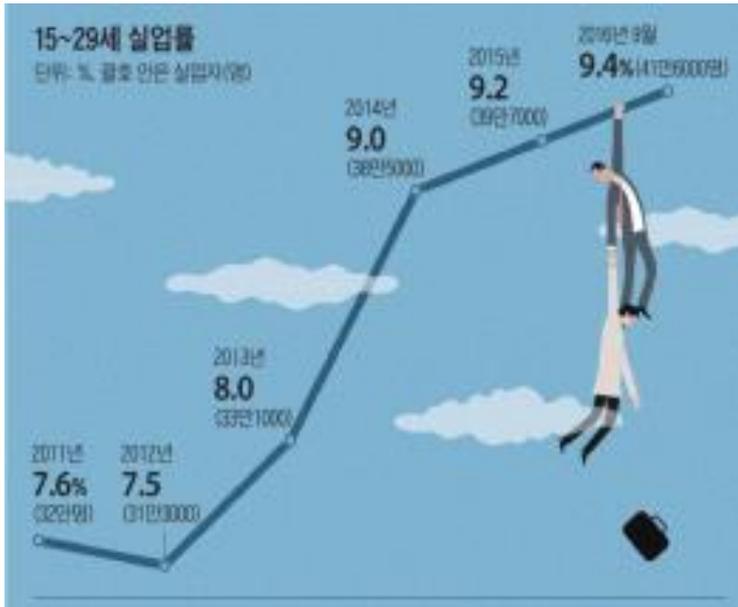
■ '청년 실업'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미취업 대학졸업자 수가 13만명에 이르러 **고학력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대학 졸업생 55만7천명 : 취업자수 34만5천명,
실업자 13만1천명, 대학원 진학 9만5천명
(2015년 교육부 취업통계 연보)

-> 고용없는 성장시대 맞아 경제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한계**

'잃어버린 일본' 보다 더 심각한 청년실업



■ 도전적 창업의식 부족 : 창업실패의 두려움

“실패 땀 재기 어렵고 신용불량 낙인, 창업하기 싫다”

‘창업 관련 의식’ 조사... 경기 침체에 부정적 의견 늘어

경기침체와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으로 창업의욕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창업 관련 국민의식 변화와 시사점’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식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39.4%로 2년 전 2013년(44.4%)에 비해 5.0%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창업에 ‘전혀 관심없다’는 응답은 37.7%로 2년 전 25.9%에서 11.8%포인트 늘었다. ‘자녀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는 응답도 52.6%에 달했다.

창업여건에 대해서는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85.7%였고, ‘매우 나쁜 편’이라는 응답자는 46.9%로 2년 전(32.3%)보다 쯤쑤 뛰었다. 창업의 걸림돌로 ‘경기침체 지속’을 꼽은 사람이 59.2%로 가장 많았다.

창업을 꺼리는 이유는 재기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의견이 70.2%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창업하다 실패하면 신용불량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에도 91.7%가 공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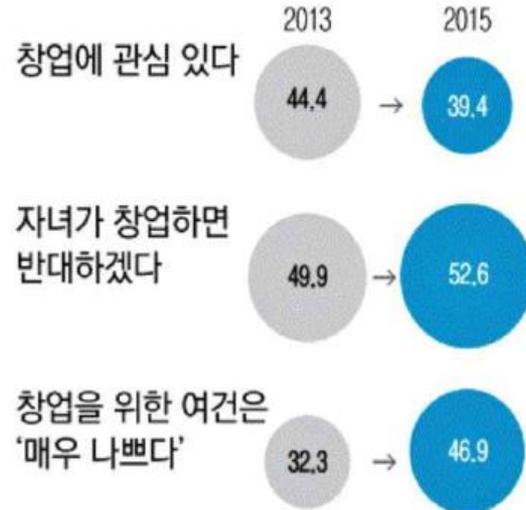
창업을 원하는 분야로는 ‘음식·숙박업’이 2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

매업이 26.1%였다. 마땅한 기술 없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재실 뜯어먹기식’ 창업 분야로 평가되는 업종이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어렵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7.2%에 그쳤다. ‘바이오 및 의학’ 분야는 3.6%였다.

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았지만 ‘1년 미만’도 35.7%나 됐다. 창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으로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원 미만’이 26.2%였다. 창업 준비기간이 짧은 데다 자본력이 크지 않은 영세 창업이 많은 이유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창업 관련 인식 변화

※2015년 10월15~27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818명 전화조사,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단위:%



전국 4년제 113개 대학생 3,861명 조사

창업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41.8%)
- ② 실패에 대한 두려움(33.0%)
- ③ 자금확보의 어려움(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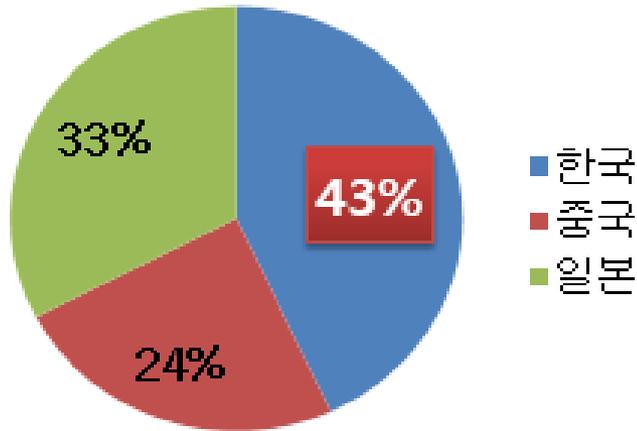
(자료 : '14. 전국대학생 실태 백서 여의도 연구원)

창업을 원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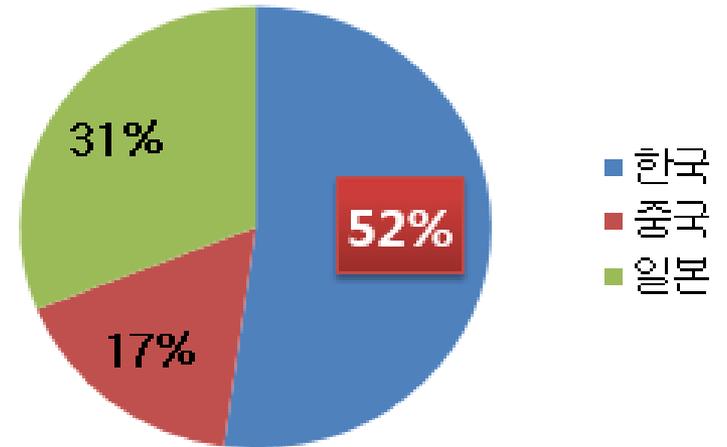


■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팬배'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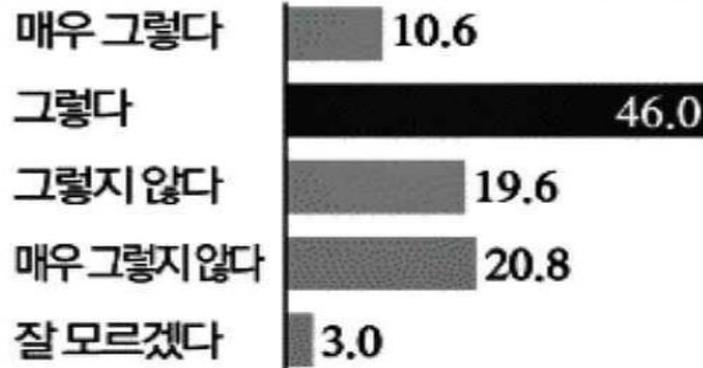


가족의 창업 만류



대한민국 20대에게 물어보니 (단위=%)

취업 대신 창업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



(자료 : 과학창의재단 2013 12)



■ 글로벌 기업가정신 '쇠퇴'.....에스토니아, 칠레보다 뒤져

| 순위 | 국가 | GEI | 순위 | 국가 | GEI | 순위 | 국가 | GEI |
|----|-------|------|----|-------|------|----|---------|------|
| 1 | 미국 | 83.4 | 11 | 핀란드 | 66.9 | 21 | 카타르 | 58.0 |
| 2 | 스위스 | 78.0 | 12 | 독일 | 64.9 | 22 | 노르웨이 | 55.9 |
| 3 | 캐나다 | 75.6 | 13 | 프랑스 | 64.1 | 23 | 에스토니아 | 55.5 |
| 4 | 스웨덴 | 75.5 | 14 | 오스트리아 | 63.5 | 24 | 싱가포르 | 52.2 |
| 5 | 덴마크 | 74.1 | 15 | 벨기에 | 63.0 | 25 | 일본 | 51.7 |
| 6 | 아이슬란드 | 73.5 | 16 | 대만 | 60.7 | 26 | 슬로베니아 | 51.5 |
| 7 | 호주 | 72.5 | 17 | 이스라엘 | 59.1 | 27 | 대한민국 | 50.5 |
| 8 | 영국 | 71.3 | 18 | 칠레 | 58.8 | 28 | 리투아니아 | 49.6 |
| 9 | 아일랜드 | 70.0 | 19 | UAE | 58.8 | 29 | 포르투갈 | 47.2 |
| 10 | 네델란드 | 67.8 | 20 | 룩셈부르크 | 58.1 | 30 | 사우디아라비아 | 47.2 |

* 자료 : GEDI 2017

■ 그래도 희망은, 정부, 초·중·고등학교 **기업가정신 정규과목 채택**

정주영 같은 창업가 10만 명만 키우자

경제가 많이 어렵다며 정부는 최근 경기 부양, 임금 인상, 규제 완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띄우겠다고 한다. 그걸로 충분하냐. 한국 경제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성장의 호시절이 지나갔다고 한탄만 할 때가 아니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같은 창업가 10만 명만 키우자. 한국 경제호의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예전 같지 않다. 청년 실업의 강도는 미국·프랑스·일본보다 심하게 '세대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GEDI)'는 세계 120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콜롬비아·오만 같은 나라보다도 낮다. 기업가 정신이 강한 나라일수록 경제가 강한 활력과 역동성을 가진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재산이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넘는 전 세계 억만장자 1826명을 조사했다. 그 중 3명 중 2명꼴인 1191명이 창업 등으로 재산을 일군 자

수성이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는 230명(12.6%)에 그쳤다. 미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정보기술(IT)·바이오·리뷰·서비스 등 다양한 신성장 분야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택해 새로운 부를 일구고 있다. 차량 제공 업체 우버,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등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대표적이다. 미국 경제가 강한 이유다.

한·중·일 세 나라만 비교해도 분명해진다. 포브스 조사 결과 중국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을 포함, 자수성가형 부자가 98%였으며 일본도 86%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김범수 다음카카오 사장(29억 달러) 등을 포함해 자수성가형 부자가 약 30%에 그쳤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돌파구는 '창업의 숲'을 키우고 겁 없는 도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새로운 방정식만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기업가정신교육

이병철·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초·중·고 정규 과목으로 교육

2018년부터 초·중·고교 수업에 기업가 정신 교육이 포함된다.

정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업가 정신 교육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9월 개정한 교육과정의 사회과목 등에 기업가 정신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중·고교 정규 교과목에 기업가 정신 교육이 반영되면 2018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은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초·중·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기업가 정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을 예정이다. 고 정주영·이병철 회장 등 국내 기업가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 해외 기업가의 생애를 비롯해 다양한 내용이 수록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창업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초·중·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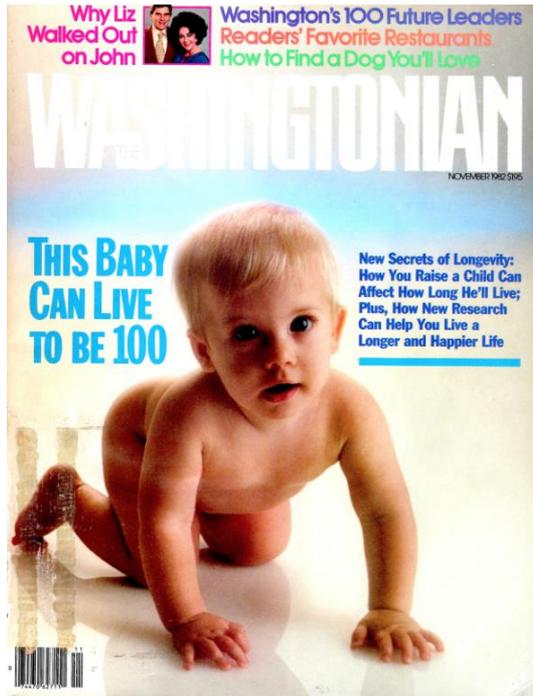
▲ 이병철 회장 ▲ 정주영 회장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 기업가 정신 교육의 실효성도 높인다. 우수 인력이 벤처기업과 창업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기업가 정신의 확산을 통해 도전적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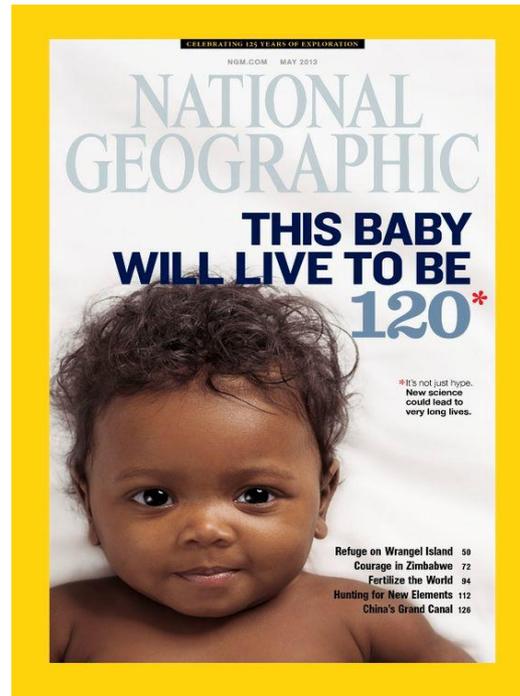
대학생과 예비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초·중·고교생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다. 중소기업청이 '청소년 비즈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은 전체 학교의 5%에도 못 미친다. 반면 유업연합(EU) 국가 중 3분의 2와 미국의 10개 주(州)에선 초·중·고교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세종=이승우기자

■ 당신의 선택은?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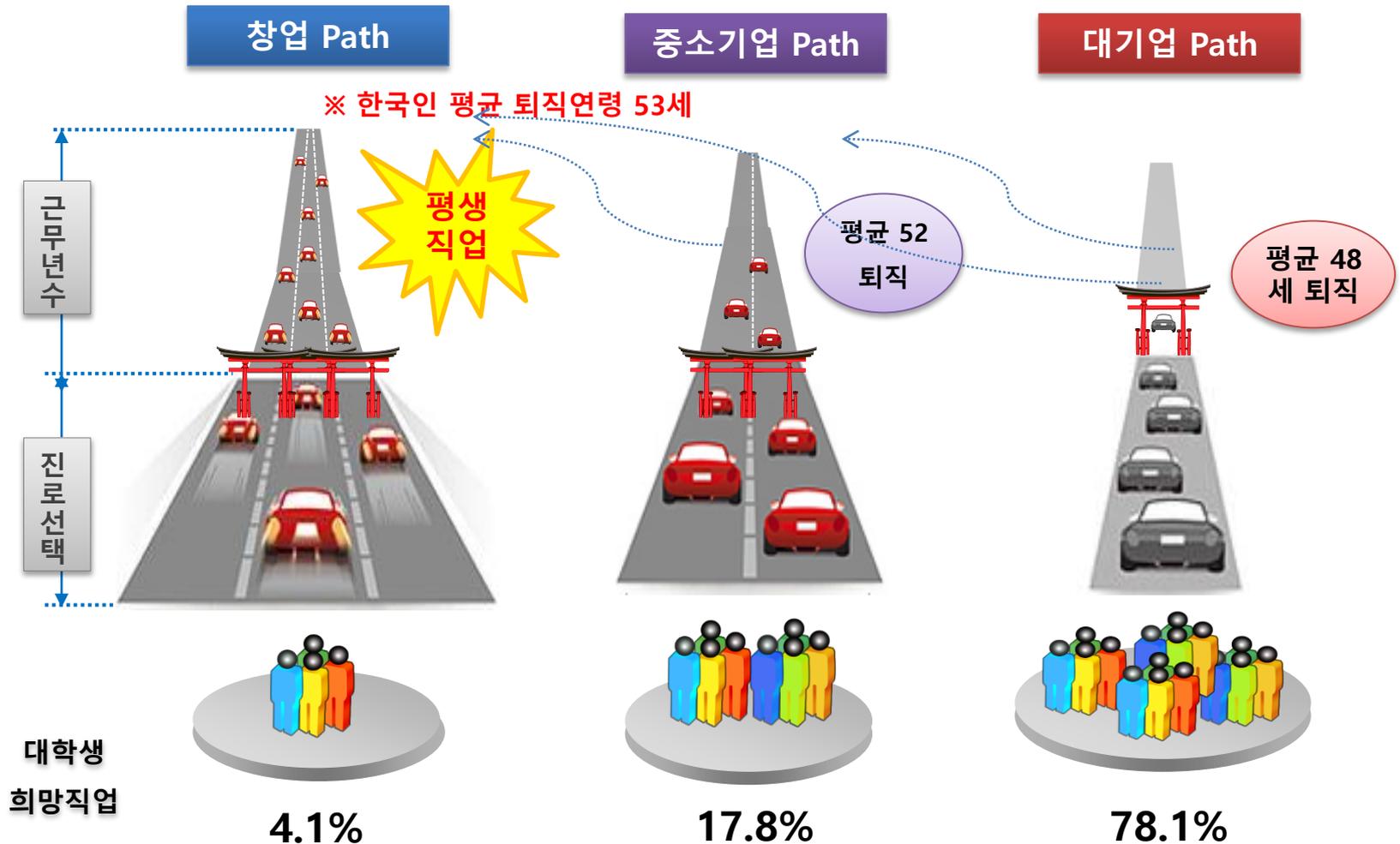
2013년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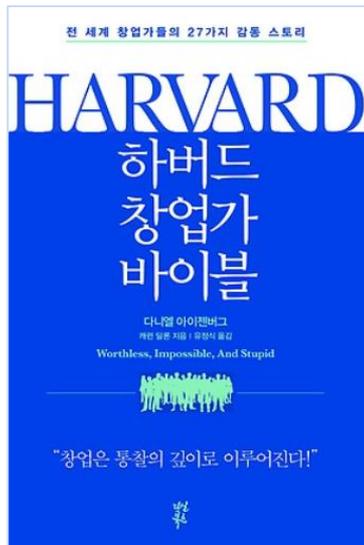
5년 내 일자리는 **500만개**가 사라지고,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65%** 현재 **세상에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다보스포럼 2016년)

기업가정신....**평생** 직업의 지름길 찾기



■ 기업가정신 석학 **다니엘 아이젠버그**의 기업가정신 메시지

“**‘혁신’만이 기업가정신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성장(Scale up)을 달성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 혁신적이지 않아도 된다.

✓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 평범한 사람 누구나 성공한 창업가가 될 수 있다

- 끝내며.....기업가정신, **개인**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

남들이 문제로 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

기업가정신 \neq 창업

◀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발현 사례**가 '창업(Start up)이지만, 그 적용 범위가 반드시 창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후천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키워야 할 **개인의 역량**